

검사관련 Q & A

가. 검사도구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란 무엇인가요?

A. 신체발달의 정도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평가하고 성장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으로 2007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나. 검사진행

Q. 왜 이런 검사를 하나요?

A.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건강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문제에 적절히 개입한다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며 학교 부적응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Q. 검사 및 상담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나요?

A. 학교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및 상담관련 자료 일체는 학생 치료지원 목적 이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몇 분의 선생님(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은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Q. 검사결과가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A.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상담결과 등은 학교 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설문조사(상담) 결과로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약물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의 상담은 그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누가 응답해야 할까요?

A. 부모님 중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 양육자가 부모님이 아닐 경우(조부모님 등) 부모님보다는 주 양육자가 작성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가 설문지에 답변한 것으로 관심균을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A.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잘 아시는 경우가 많고 혹여 아이가 더 잘했으면 하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정서·행동 발달 경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아이의 마음건강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검사결과

Q.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성격특성검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성격특성검사 결과는 학생과 부모, 학교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격특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한 명료한 이해 및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좀 더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 관리하는 것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설문지 문항 몇 개로 어떻게 아이의 심리상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나요?

A.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성격특성과 해당 연령대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아이의 심리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아이의 마음상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이가 관심군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A. 관심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해당 연령, 성별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이 일정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학생의 심리문제를 모두 파악하거나 특정 정신과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집중력의 저하나 불안, 우울, 학습부진, 사회성부진, 짜증 등 부정적 기분, 반항적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부족 등의 경향성을 도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Q. 검사결과를 보고 아이가 힘들어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검사결과가 그 자체로는 학생의 심리문제를 모두 파악하거나 심각한 특정 정신과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안심시켜 줍니다. 이후 학생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점검하고 학생이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평가를 통해 평소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라. 검사결과조치

Q. 우선관리군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A.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긴급조치를 안할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대표적으로는 자살위기(자살 시도, 적극적인 자살 계획, 뚜렷한 자살 의도)가 있으며, 그 외에 심한 자해도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